

■ 2026 새해설계 공영민 고흥군수

“우주항공·관광 어우러진 복합도시 조성 박차”

우주·드론·스마트팜 3대 미래 전략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지속가능 농어업 고도화 집중

“우주항공 산업과 연구, 교육, 관광 등이 어우러진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우주·드론·스마트팜의 3대 미래 전략사업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고히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흥군은 오는 2031년까지 우주발사체 산업을 리스터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진행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는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 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 발사장은 올해 말 1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고, 2030년 2단계까지 준공이 완료되면 1~2주 간격으로 우주선이 발사될 전망이다.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유치하고 사이언스 캠퍼스도 건설하겠다.

올해 드론특화사업단지가 준공되면, 25개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1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굳은 전망했다.

2028년까지 드론 기체 인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드론 생산부터 시험평가와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게 하고, UAM 파일럿 양성센터를 구축하는 등 드론 중심도시의 기반을 갖추게 된다.

스마트농업 분야에서는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변으로 스마트 원예단지, 스마트 축산 ICT 한우 시범단지, 스마트 수산양식단지 등 기 유효한 공모사업도 추진해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완성 속도를 높인다.

국립 순천대학교 고흥캠퍼스는 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농업인이 취·창업의 꿈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스마트팜 확산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탄소 저감 농업기술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령화 추세에 따른 지속 가능한 축산 경영을 도모해 농축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어선어업 노동력 절감장비와 미이용 해조류 자원화 시설 지원 등 어업의 성장 기반도 함께 마련



한다.

고흥읍~봉래면 간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2030년까지 준공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스마트 영농밸리지 등 총 10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고 지난 10월 첫 삽을 뜯 전남형 만원주택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 혁신형 공공임대주택 500호를 조성해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민간개발 2GW를 더해 총 4

청년과 귀농귀촌인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 할 방침이다.

국도 15호선 동강 한천교차로 개선과 도양읍 제2주차타워를 착공해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728억원 규모의 재해예방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계획이다.

1000만 관광 시대를 활짝 열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골프장과 호텔, 해양레저시설 등을 갖춘 2000억원 규모의 휴양밸리지와 1200억원 규모의 대중 골프장, 5000억원 규모의 해양예술랜드는 부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앞당기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할 고흥문화재단은 오랜 준비 끝에 올해 창립을 앞두고 있다.

고흥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 천경자·화백의 기념관 건립과 예술거리 조성하고 고흥분청사기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문화적 자부심을 한층 높인다.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에너지 대전환과 군민 에너지 연금으로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지난해 6월 공주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GW의 공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민간개발 2GW를 더해 총 4

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

군유부지에 있는 태양광 발전단지도 소유권 이관 후 함께 활용해 가구당 월 6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노인 전답 주지의제와 80세 이상 어르신의 품위유지를 위한 청춘바우처 쿠폰 지원 등 어르신이 가장 행복한 고흥이 되도록 돌봄을 강화한다.

마리안느·마가렛의 송고한 봉사 정신을 계승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하반기에 준공하고,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도 개최해 희망과 나눔을 전파하는 자원봉사의 성지로 만들 계획이다.

동강특화농공단지는 오는 6월까지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며, 고흥청정식품농공단지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등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닦는다.

공영민 군수는 “6만여 군민과 70여만 향우와 함께 힘을 모아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이루는 비전을 차질없이 달성해 가는 한 해를 만들겠다”며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 기시적인 성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성장을 다하는 자세로 군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화장실을 깨끗하게’ 순천시는 16일까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 화장실 6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원 화장실의 시설물 현황과 적동 상태, 청결 및 안전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동절기 동파 예방을 위해 운동기 등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순천, 디지털 혁신 ‘스마트도시’ 성큼

어르신 친화형 스마트 복지거점 경로당 구축 추진

순천시가 2026년 ‘순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순천형 스마트도시’는 디지털 기반의

사회적 혁신을 목표로, 어르신 친화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과 지역 맞춤형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어르신 친화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1인 노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순천시 고령친화 도시전략의 핵심 과제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기존 경로당을 건강관리·여가·소통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스마트 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암시·안전 솔루션,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스마트 견

곡성, 정부 예산편성 대응 2027년 국·도비 확보 ‘총력전’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223억 규모 사업 발굴

곡성군이 2027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4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정창모 부군수 주재로 ‘2027년도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정부 예산 편성 시기보다 한 달 앞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부족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서에서는 발굴한 총 25건, 사업비 223억원 규모의 건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향후 확보 전략 등을 논의했다.

군이 발굴한 사업은 유형별로 현안사업 8건(115억원), 지특사업 8건(46억원), 공모사업 9건(62억원) 등이다.

특히 전체 건의액 중 신규 사업이 17건, 99억원으로 약 6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해 민선 8기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운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순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해 어르신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도시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 디지털 격차 없는 포용적 스마트도시화를 대표하는 탄소중립도시로 대시기로 확대 시행한다.

시민과 함께 ‘순천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해 어르신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도시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 디지털 격차 없는 포용적 스마트도시화를 대표하는 탄소중립도시로 대시기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특별 할인은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군민의 제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10% 선할인에 더해, 결제 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받을 수 있어 총 12%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적립된 캐시백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애플리케이션 내 ‘캐시백 ON/OFF’ 기능을 통해 활용되며, 이용자가 ‘ON’으로 설정할 경우 이후 결제 시 적립금이 우선 사용된다.

지류형 보성사랑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할인 혜택이 유지된다. 카드형



곡성군은 정창모 부군수 주재로 ‘2027년도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 시설 사업(100억원), 곡성군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4억원), 육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20억원)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포함됐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을

정창모 부군수는 “대규모 현안 해결을 위해 국·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지난해 2026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건의액 대비 83.7%인 624억원을 확보했던 성과를 밝거리를 삼아 올해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보성사랑상품권 카드형 6월까지 특별할인

결제 시 2% 추가 적립… 최대 12% 혜택

보성군은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보성사랑상품권 카드형 할인 혜택을 기존 10%에서 최대 12%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특별 할인은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군민의 제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10% 선할인에 더해, 결제 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받을 수 있어 총 12%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적립된 캐시백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애플리케이션 내 ‘캐시백 ON/OFF’ 기능을 통해 활용되며, 이용자가 ‘ON’으로 설정할 경우 이후 결제 시 적립금이 우선 사용된다.

지류형 보성사랑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할인 혜택이 유지된다. 카드형

과 지류형을 합산한 월 구매 한도는 7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카드형 추가 혜택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군은 할인을 확대해 따른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구매·환전 이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보성사랑상품권 카드는 능·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광주은행 창구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비대면 발급도 가능하다. 군은 카드형 상품권 이용을 적극 권장해 더 많은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고물가·고금리 상액 생산을 위해 채취 전 단계부터 채취용 호스와 집수통,

정제시설 등을 사전점검하고 채취 전 과정이 관련 기준에 따라 철저히 이행되고 있으며, 정제과정을 거친 수액은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외선 살균기를 통한 품질 관리와 함께 채취자, 정제 일자 등이 표기된 QR

광양시는 15일부터 백운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준비

기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p